문화재 부실 보수·보존 '도마 위'

문화재청 국정감사 내용 살펴보니

문화재청(청장 김종진)이 부실한 문화재 복원과 보존·관리 행정으로 여·야 의원들에게 날선 비판을 받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0월 16일 국회에서 문화재청과 소속 산하기관에 대한 2017년도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현재 부실함이 노출된 문화재 정책 전반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문화재 방재 대책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들이 많았다. 조훈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찰 목조문화재 화재보험 미가입률이 66.3%에 달한다"면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주 불국사와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도 화재보험에는 가입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 2005년, 건물 14동이 붕괴된 양양 낙산사 화재 당시 관세음보살을 모신 전각인 원통보전만 화재보험이 가입돼 있어 피해보상액은 5억 원에 그쳤다.

조 의원은 "사찰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료 부담 등으로 가입률이 저조하다"면서 "화재 발생 시 국가가 100% 복원 비용을 투입해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문화재청이 종단과 협의 하에 가입을 독려하고, 보험료 지원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목조문화재 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해 설치한 CCTV의 화소가 떨어지는 것에

사찰 문화재 보험 미가입 지적
미황사 천불도 부실 복원 비판
목조 문화재 방재 문제 제기도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재 국가지정 목조문화재에 설치된 CCTV는 모두 3,871개이며, 이 중 41만 화소 이하는 1,116개(29%)에 달한다"고 밝혔다, 130만 이하는 305개(8%), 130만 초과는 2,450개(63%)이다.

저화소 CCTV 46개는 국보로 지정된 목조문화재 7곳에 설치돼 있으며, 249개는 보물 목조문화재 39건에 설치돼있는데, 이 중 보물 22건에 설치된 128개가 모두 저화소로 조사됐다. 나머지 보물 17건의 경우 저화소 121개와 고화소 66개를 섞어 설치했다. 사실상 목조 국보 보물 27건에 설치된 155개 CCTV가 안전 예방 기능을 상실한 저화소인 셈이다.

김 의원은 "가장 훌륭한 문화재 보존과 관리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라며 "화질이 나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CCTV를 하루빨리 교체해 소중한 문화재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목조문화재에 대한 CCTV 설치가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목조 문화재의 경우 화재가 나면 복원이 어렵다"면서 "전국 목조문화재 330개 중 65개소는 CCTV 설치가 안 돼 있다"고 지적했다.

부실한 사찰 문화재 복원도 도마 위에 올랐다. 손혜원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된 미황사 천불도 훼손에 대해 "문화재청-자문위원-보존수리업자의 부패 삼각사슬의 단적인 예"라고 질타했다.

손 의원에 따르면, 미황사 천불도 수리는 지난 2015년부터 영산문화재연구소가 진행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해당 업체 대표의 부인이 수장인 사찰문화재보존연구소가 모사를 진행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이후 보존수리 업체가 제출한 설계도에는 현재의 문화재를 떼어내고 모사본을 붙이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내용은 그대로 문화재청 수리기술과의 승인을 받아 진행됐다.

이러한 결정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지류, 불화 등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전무했던 자문위원회의 심의 때문이었다는 게 손 의원의 지적이다. 자문위원회는 업체의 의견을 그대로 반영한 심의결과를 내놓았고 문화재청 역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별도 검토 없이 그대로 수용했다.

손 의원은 "문화재위원회 의견서에 따르면 벽면에서 떼어내는 행위 자체가 문제이며 재부착을 위해 제작된 모사도 역시 그 격이 떨어진다고 명시돼 있다"며 "미황사 천불도 문제는 일련의 보존수리 과정들이 모두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사전에 결정된 상태에서 문화재청, 업체, 문화재청 출신 자문위원들의 결탁으로 이뤄진 일"이라고 비판했다.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청년문제 책임질 전문가들 뭉치다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 위촉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가운데)과 위촉된 미래세대위원들.

주거·취업·학업 등 청년세대가 겪는 문제들을 해소하고, 불교의 가르침으로 심성을 맑히기 위한 불교전문가들이 한 데 뭉쳤다.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서 총 15명의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위원 임기는 2년이며, 향후 일반 청년단체 활동가들을 추가 위촉해 청년문제 해결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날 위촉된 위원은 △심산 스님(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장) △일감 스님(중앙종회의원) △광전 스님(중앙종회의원) △묘장 스님(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상임이사) △법선 스님(광주 문빈정사 주지) △가섭 스님(조계종 포교부장) △원빈 스님(행복문화연구소장) △수안 스님(매화종합사회복지관장) △유지원(전북불교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유형(안동청소년문화센터 관장) △김성권(대한불교청년회장) △이경수(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 △정웅기(생명평화대학 운영위원장) △이채은(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간사) △한정민(조계사 청년회장) 등 15명이다. 위원장은 호선을 통해 심산 스님이 맡게 됐다.

윤호섭 기자

BBS, 미디어센터 건립으로 '제2 창사' 선언

상암동에 580평 부지 확보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불교의 현대화·세계화 및 불교 미디어의 발전을 선도할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불사에 나선다.

BBS불교방송은 "최근 BBS글로벌미디어센터(상암 사옥) 건립 부지를 확보했다. 해당 부지는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하며, 580여 평(1917.2㎡) 규모"라고 10월 20일 기자간담회서 밝혔다. 부지는 상암동 인근 종교시설 1필지로, 현재 등기 신청을 마쳤다.

BBS글로벌미디어센터는 TV 및 라디오 스튜디오를 비롯해 불자들의 신행생활이 가능한 법당과 명상센터 등을 갖춤으로써 방송·문화·종교가 어우러진 복합 미디어 공간으로 꾸려진다. 향후 건물 설계 공모 및 모연 불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활용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번 부지 확보는 BBS불교방송 후원회 '만공회'의 원력으로 가능했다고 전해진다. 만공회원 4만7,000여 명 중 6,680여 불자가 BBS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불사에 동참한 것. 선 사장은 "불자들이 함께하는 공간인 만큼 불사 과정에도 전 불자가 동참할 수 있도록 건물 설계 공모 및 다양한 모금 불사 등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한국불교의 한 획을 그을 역사적인 불사에 많은 분들의 동참 바란다"고 당부했다. BBS불교방송은 향후 모연 불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계획할 예정이다.

BBS글로벌미디어센터는 선상신 사장이 2년 전 취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건립은 해당 공약의 실천으로, 선 사장은 BBS글로벌미디어센터를 불자들을 위한 복합 미디어 공간으로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아름 기자

해인사 원당암 불상서 고려 경전 발견

조계종 〈대방광불화엄경〉 등 28책 납입 확인

해인사 원당암 보광전 주불인 아미타삼존불상에서 고려시대 경전들이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부장 정현)는 "해인사 원당암으로부터 보광전 주불인 목조아미타불상의 정밀조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결과 복장물로 15세기 후령통과 고려시대 경전 납입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계종 문화부와 원당암에 따르면 지난 8월 개금불사를 위해 복장을 확인하던 중 중수발원문과 은제 후령통, 고려후기 고려대장경에서 인출한 진본, 정원본의 〈대방광불화엄경〉 28책과 1375년에 간행한 〈성불수구대다라니〉가 복장 전적으로 발견됐다.

중수발원문에는 1694년 해인사 승려 숭열, 종안 등이 모연해 불상을 중수했으며, 조각승으로 법능, 법종, 경천, 청담, 지일 등이 참여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복장에서 나온 은제 후령통은 1490년 학조 스님이 왕실 후원을 받아 해인사 법보전과 대광명전에 모셨던 비로자나불상에 납입한 것과 유사한 형식으로 "해당 불상 역시 학조 스님의 주도하에 조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조계종 문화부의 설명이다.

복장물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고려시대 경전들이다. 발견된 〈대방광불화엄경〉은 고려대장경을 비롯해 고려시대 사찰간행 사간판(寺刊板)에 대한 불교 판본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

또한 수진본 〈성불수구대다라니〉는 국내에 전존본이 확인되지 않은 유일본임이 확인됐다. 조계종 문화부는 "권수의 삼신불을 비롯한 마리지천 도상의 변상도를 비롯해 간행관련 기록이 분명해 향후 불교회화사 및 불교사상사, 서지학적 연구에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협시 보살인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에 대해서 X-선 촬영



해인사 원당암 목조아미타불좌상.



복장물로 확인된 고려대장경 인출 〈대방광불화엄경〉 진본.

검사도 진행됐다. 그 안에서도 아미타불좌상과 동일한 후령통이 납입돼 있었다. 또한 낱장의 경전이나 다라니로 추정되는 종이 뭉치, 경전 사이로 화려한 보상당초의 표지화, 6행 17자로 구성된 절첩본과 17자로 구성된 족자형의 사경이 확인됐다.

특히 족자형 사경의 경우 사경 축에 금속장식이 확인되는데 이는 현재 일본 금산사에 소장된 고려 사경인 〈불설대길상다라니경〉(1324년 추정)의 사례가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주목된다는 게 조사팀의 설명이다.

한편, 해인사 원당암은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은 향후 복장을 열지 않고 법당에 봉안키로 했다.

해인사 원당암은 "목조아미타불좌상이 1983년에 개금불사를 위해 복장이 일부 개봉된 것과 다르게 관음보살입상과 지장보살입상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복장을 개봉한 적이 없다"면서 "광학적 조사를 통해 보살상 내부의 복장물을 확인하는 것에 그 의미를 두고 향후 보존 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진각종 내년 예산 174억7000만원

유지재단 이사 법정·덕운 정사

진각종 내년 예산이 174억7000여만 원으로 확정됐다.

진각종 종의회(의장 덕일 정사)는 10월 19일 서울 종인원내 진각문화전승원 4층 종의회 회의실에서 제407회 정기종의회 및 유지재단이사회 합동회의를 갖고 2018년도 통리원, 교육원 등 중앙종무기관 예산안을 심의해 통리원 144억 1000만원, 교육원 7억7000만원 등 총 174억7000여만 원으로 확정, 의결했다.

내년 예산은 행사비와 문화사업비, 인건비 등이 소폭 증가했으며 각종 운영비와 관리비 등은 감소했다.

한편 종의회는 12월 6일자로 진각종 유지재단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법정 정사(김덕천·경전심인당 주교)를 유임하고 경당 정사(정재윤·진불심인당 주교) 후임에는 덕운 정사(김성록·유가심인당 주교)를 선출했다. 이어 서울 교구 남부심인당과 경주교구 선혜심인당을 개축키로 의결했다.

김주일 기자 kimji4217@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제35대 총무원장 설정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삼각산 흥천사

사부대중일동

"흥천사에 오시면 당신의 꿈이 이루어 집니다"

서울시 성북구 흥천사길 29(돈암동)
TEL 02)929-6611

